

□ 정부시책 및 동향 □

산업자원부, 고속전력선 통신망 기술개발 추진

고속전력선 통신망 기술개발에 정부가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99중기거점 기술개발 과제」로 「고속전력선 통신망 기술개발」을 공모과제로 선정해 산학연 공동으로 2004년까지 개발 완료키로 하고, 사업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의 주관사업자로는 전력분야 벤처기업인 기인시스템(주)(사장 이기원)이 확정적인 상태로 산자부는 한국전기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한전·현대정보·두루넷·한별텔레콤·대우·LG전자 등을 분야별 사업자로 선정, 공동과제로 올해 12월부터 2004년까지 총 700억원을 투입해 10Mbps급 전력선통신망 기술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속전력선 통신기술은 전력공급을 위해 포설돼 있는 전력선을 음성, 데이터, 고속인터넷 등의 초고속 통신망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로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되어 PC 통신기기의 네트워크이나 가전기기 자동화 분야에도 활용될 신기술이다.

서울대 자동화연구소에 따르면 이 기술을 수출주도형 상품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경우 개발이 완료된 2004년 이후 5년간 50억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초대형 사업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작업에 불을 붙인 상황이다. 특히 서유럽은 전력회사의 통신사업 참여와 원격검침 등 수용가 서비스제고 차원에서 옥외망 기술개발을, 미국은 홈네트워킹 중심의 옥내망 기술개발을 추진중이고 중국 등 동남아 국가는 전력선을 활용한 전화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지멘스, 캐나다의 노르텔, 미국의 인텔로지스, 프랑스의 ABB 등 유수의 전력·통신사업자들의 개발 수준은 초보 단계로 상용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인시스템(주)이 이 분야에서 8건의 특허를 출원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1Mbps급 이하(현재 56kbps) 전력선통신 모뎀을 개발해 전력선을 이용한 음성 및 데이터 전송에 성공, 독일 전력회사 EnBw사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수출사업화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기연구소가 제출한 고속전력선 가입자망 개발 사업신청서에는 이 사업의 핵심인 「저압 전력선망을 이용한 고속전력선 통신시스템」은

기인시스템의 자회사인 기인텔레콤을 주관기관으로 한전과 두루넷이 참여하고, 「고압배전 선로를 이용한 고속전력선 통신망개발」은 전기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한전과 기인시스템이 맡고, 「원격자동화」 부문은 한전 전력연구원 이, 「정보서비스」는 한국전기연구소와 심플

렉스·닉트로닉스 그리고 「전력선 통신망에 기반한 디지털 가전기기용 홈네트워크망 개설」은 서울대 자동화연구소를 주관으로 LG 전자가 맡을 것으로 나타나 사업시작 전부터 전력 및 통신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산업자원부, 내년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예산 크게 늘려

내년에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국제박람회 규모와 예산이 대폭 늘어 중소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내년도 해외전시회 참가예산이 올해 16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130개 전시회 특성별로 주관기관과 지원 방식을 차별화,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가 및 상품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는 하노버 엑스포와 동경부품전시회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대신 업종별 해외 전문전시회의 경우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등 37개 업종별 단체가 주관하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측면 지원토록 한다. 아울러 런던게임전시회, 동경원예전시회, 밀라노의료의약품전시회와 같이 지식집약적 신산업 분야로의 참여를 대폭 늘려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중소·벤처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신기술 전시회에 대한 개별 참가 폭을 확대하기 위해 225개 중소기업을 선

정, 업체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KOTRA 김종식 국제박람회부장은 KOTRA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전시회를 올해 62회에서 내년에는 58회로 줄이는 대신 업종별 단체와 공동 주관하거나 임차료를 지원, 유관 단체가 주관하도록 하는 전시회가 각각 22회, 50회로 올해보다 16회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6월에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 벨리에서 개최되는 벤처기업전시회에 참가, 중소·벤처기업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방침이라는 것. 그는 또 부품·소재분야, 산업설비분야, 문화산업분야 전시회에 신규로 참가하거나 기존 전시회의 경우 참가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21세기 신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대한 참가를 확대하고 전문 박람회가 많이 유치되는 미국 및 EU(유럽연합) 지역 참가를 늘려나갈 예정

이다.

한편 산자부는 국내전시회 지원예산 10억 원을 활용, 규모가 크고 수출효과가 큰 4, 5개 국내전시회를 선정·지원해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전시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

다. 이는 내년 3월 완공되는 COEX ASEM 센터, 오는 2001년과 2002년 선보이는 부산 종합전시장, 수도권전시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소형정밀모터 신기술 韓-日 공동연구 개발

소형정밀모터의 신기술 개발 및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기 위한 한·일 공동연구협약이 체결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세기 지식기반 산업기체인 캠코더, 컴퓨터, 자동화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정밀모터의 신기술 개발 및 국제 규격화를 위해 일본 와세다대학 이공학 종합 연구센터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소형정밀모터는 아직까지 국제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실정으로 현재 미국, 유럽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표준화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성능평가 방법을 표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IEC(국제 전기표준위원회)에서도 EU(유럽연합) 주도로 국제규격 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으로 수출되는 소형 정밀모터는 품질기준으로 적용, 기술무역장벽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차세대 모터로 각광받고 있는 브러쉬가 없는 DC모터, AC기어드 모터, 스탭핑 모터 등에 대한 설계기술, 부품표준화, 성능평가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업체에 선진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소형정밀모터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오는 2002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공동연구 추진을 계기로 중국 및 미국과의 기술협력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 부채많은 中企 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요 정책자금을 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업종평균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주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부채비율 기준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분류 업종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전업종 평균 부채비율(336.1%)의 3배(1010%)를 적용하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업종의 경우 전업종 평균부채비율(337%)을 적용한다.

단,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연간 매출

액 중 수출비중이 25%(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러한 시책이 집행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 중소기업 중 약 10% 수준의 기업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자금조달 여건 및 시행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 제한 부채비율의 추가적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채비율(334.4%)은 일본(186.4%)이나 대만(85.7%) 등 주요 경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295.4%) 보다도 높은 상태다.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지정요건 강화

내달 1일부터 벤처기업 지정요건 및 절차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종전 벤처캐피탈로부터 자본금을 투자 받은 기업의 경우와 특허실시권을 인정 받은 경우 모두 벤처기업으로 지정됐던 사례가 없어진다. 또 벤처기업 확인시에도 기업 스스로가 회계사 및 세무사를 선정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중심으로 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 신규지정시 벤처성이 높은 기업중심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인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된 벤처기업 지정요건에 따르면 앞으로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신주를 10%이상 인수하는 투자의 경우만 투자실적으로 인정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된다.

종전에는 벤처캐피탈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 받은 기업의 경우 경영연수(업력)나 신주·구주인수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했었다.

또 한 개의 특허권 아래 수십개의 실시권에 의해 벤처기업이 생길 수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연구소와 특허권자가 전국을 하나의 지역으로 해 실시권을 최초로 부여하는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록 했다.

벤처기업 지정절차도 강화돼 벤처기업 실질 확인을 할 회계사·세무사 등을 기업 스스로가 정하지 못하고 최종확인서를 발급하는 지방중기청에서 임의지정, 증명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공인회계사·세무사회·경영기술지도 사회가 내부적으로 '벤처기업확인업무규칙'을 제정 시행토록 했으며 확인심사시 100%

현장확인토록 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미 지정된 4500여개의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벤처성이 낮은 기업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30개 벤처기업에 대해 개정되는 확인요령에 의해 재지정기로 했다. 재심사는 향후 6개월마다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단체수계 축소지정 '진통'

올해보다 52개품목이 축소된 내년도 1백 54개 단체수의계약품목지정을 두고 정부와 조합, 그리고 업체들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체수의 계약대상품목을 올해 2백6개에서 내년에 1백 54개로 52개 품목을 줄이기로 확정하고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조합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아직까지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단체수의 계약품목을 축소할 경우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제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변압기와 UPS, 정류기, 발전기, 배전반, 개폐기등 6개 품목을 단체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조합의 경우 올해 금구류

1개 품목을 제외한데 이어 내년에는 2개 품목을 제외하고 4개 품목만을 단체수의 계약물품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공업계가 2개 품목이 단체수의 계약에서 제외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현행유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전선조합도 케이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등 현재 5개 품목을 운용하고 있는데 올해 점퍼선이 제외된데 이어 내년 또다시 1개 품목이 단체수의계약에서 제외돼 4개 품목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52개를 줄이고 오는 2천1년에는 다시 51개를 축소, 1백3개 품목만을 지정기로 이미 법규상 확정된 상태여서 전체 품목수를 조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단체수의 계약운용규칙에 의한 물량배정기준등에 위배되지 않는 물품중 각조합별로 추천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단체수의계약대상품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이사회결의를 거쳐 추천신청한 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기준에 의해 검토, 중기청에 대상품목을 추천한다.

중기청은 이를 품목별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를 거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에 중기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단체수의 계약품목수는 지난 '94년 4백96개 품목에서 '95년 3백14개, '96년 2백89개, '97년 2백60개, '98년 2백58개, '99년 206개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는 1백54개, 2천1년에는 1백3개로 축소될 전망이다.